

다문화가정 여성의 의생활착의습관에 관한 질적 연구

이 윤 정

경인교육대학교 생활과학교육과

A Qualitative Research on Clothing Habit of Wo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Lee, Yun Jung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actical Arts Education

ABSTRACT

This qualitative research on wo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aims to analyze their clothing weight, habit, management and purchasing of clothing as well as their children's in order to provide fundamental data or literature for their adjustment in Korean clothing culture and health management.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interviews to eleven married foreign women with nationality of various climates, and subsequently by categorical analysis and subject analysis. The final outcome in terms of subjects included 'heating/cooling system as to environmental temperature', 'scope of climate adaptation differences in the amount of clothing', 'sleepwear and bedding' and 'clothing purchasing behaviour'. The empirical survey showed that those who came from colder regions or warmer regions had difficulties adjusting to the climate. And their clothing weight & clothing habits, originated from their home countries, were found to be kept stable and to be systematically transferred to their children as well. When it comes to sleepwear and bedding, the women seemed to be less interested in them than normal outerwear, but they tended to like to cover the belly of their babies while they didn't have sufficient nightwear for themselves. And shopping and management of clothing were another area with differences between those women and Korean ones. These results imply that further research 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particular on their clothing behavior, and on changeability of the behaviour through education or through evolution is needed.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ies, clothing weight, clothing habit, clothing purchasing behaviour, qualitative research

I. 서론

1990년대 한국남성과 아시아여성들이 결혼으

로 가정을 이루기 시작한 이래, 2009년에는 12만 6천여 명의 결혼 이주자가 거주하고, 2020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20%가 다문화가정이 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결혼으로 인한 외국 여성들의 이주가 한국을 다문화 사회로 이행시켰으며,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은 기후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한국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주 역사가 짧고 순혈주의 신화를 가질 정도로 폐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가정에 적응하고, 우리나라의 기후와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적응하기란 매우 힘들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제한된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금연 2003), 다문화가정과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과 학대(양철호 등 2003), 결혼 이민자들의 생활실태와 적응에 관한 연구(김연수 2007),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이영주 2007),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박경자·김송이 2007) 등 가족관계 적응, 언어적응의 문제, 교육문제 등에 국한되어 있고, 우리 실생활과 직결된 식생활문화에 대한 연구(김정미·이난희 2009)는 다소 있으나, 의생활문화에 관한 연구는 없다.

의생활은 인간이 기후환경에 대응하여 살아가기 위한 주택, 냉난방 등과 같은 문화적 적응 수단 중의 하나로 우리의 생활과는 매우 밀접하다.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착의량을 조절하게 되고(안필자·최정화 1992; 이원자 등 2000), 이로 인해 형성된 착의습관은 지역마다 다르다(정영옥 1991), 계절별로도 착의량이 다르다(황수경 등 1999). 또한 아동들의 착의량은 부모의 착의량과 착의습관에 따라 정해지게 됨으로(한명숙·이인경 1992), 어릴 때 형성되는 착의습관은 건강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여성과 자녀들의 착의습관과 착의량을 다룬 연구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또한 다문화가정의 의생활용품의 관리실태, 의생활제품의 구입 실태 등 우리나라에서의 의생활문화 적응에 관한 자료도 전혀 없어, 다문화가정여성과 자녀의 의생활 지도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계절별 착의량과 착의습관, 의류제품의 구입과

관리 등 전반적인 의생활실태를 분석하여, 건전한 한국 의생활문화 적응에 도움이 되는 의생활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여성과 자녀의 착의습관과 의생활문화양식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의생활습관은 개인과 문화에 따라 차이가 크고 복잡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조건에 대한 간략한 묘사보다는 기후,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현상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는 현상을 경험한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주관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여성들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중 면접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법은 질적 연구에서 가장 흔히 이용되는 자료수집 방법의 하나로, 연구자가 연구 대상에 대한 자료를 피험자와의 대면 질문을 통해 수집하는 것으로서 피험자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밝혀내는 방법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보고자하는 중심현상에 대한 풍부한 정보습득을 위해 면접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계획하고 형식화함이 필요하다(Kvale 1996). 또한 면접과정에서 면접자의 통제 하에 피면접자들의 형식적인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친근한 상호작용적 대화로서 피면접자들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다. 즉 정해진 형식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 피면접자가 한국에서의 기후변화와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의생활양식의 착의습관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바를 이야기 할 수 있다. 면접을 위한 질문내용은 환경기온의 차이에 따른 냉난방현황과 우리나라의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사계절 착의량, 수면시 침구와 잠옷의 사용 여부, 의복의 구매실태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답변 속에는 피면접자의 경험적 사실을 재구조화될 수도 있고, 이야기 속에 그들의 인식, 태도가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다. 그러므로 면

접 과정에서 피면접자들로부터 이끌어낸 이야기는 이들의 인식과 태도 습관에 대해 더 풍부하고 구체적인 기술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며 실제 형식화된 조사 질문에서 놓치고 있는 점들을 밝혀 줄 수도 있는 자원으로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이정은 2007).

면접을 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와 협의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고, 모든 면담은 일대일 개별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에 대해 충분히 숙지시키고, 면접은 1회 이상 진행될 것이며, 면접의 모든 내용이 녹음됨을 알렸다. 일부 녹음을 불편해하는 참여자들도 있었으나, 자료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분임을 인식시켜 동의를 구할 수 있었다. 면접의 내용뿐 아니라 연구 참여자의 비언어적인 표현과 연구자 개인의 생각, 사고의 변화 등의 내용을 메모하여 점검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면접은 연구대상자 1명당 30분에서 1시간 사이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절차는 녹취한 자료를 모두 텍스트로 필사하여, 원자료로 활용하였다. 근거자료를 통해 개념을 발견하고 명명하여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사고나 사건, 작용/상호작용을 하위범주로 묶은 후 범주화하기 위해 (최은화 · 이윤화 2010),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의미단위를 찾아내었고(줄단위 분석), 유사한 의미단위들을 묶어서 하위범주로, 다시 하위범주들을 묶어서 범주로 통합하는 범주화 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변환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주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연구자의 경험세계에 있는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실행하였다(주소희 등 2009). 여기서 범주화 분석과 주제 분석을 통해 4개의 주제를 발견하였으며, 연구결과에서는 범주화 분석결과는 생략하고 주제들을 중심으로 현상을 기술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를 힘들게 한 것은 연구 참여자들 중 한국어에 대해 의사소통이 부족한 연구자대상자가 있었고, 대답이 곤란한 경우에는 답변을 단답형으로 한다는 점이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정 이론의 검증보다는 현상의 발견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해 문서자료와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의미를 발견하려는 자세를 취하였고(Bogdan & Biklen 1998), 이들의 진술 자료를 기초로 하면서, 역사적인 배경과 광범위한 생활영역의 맥락들, 면접에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보이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들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정에서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다. 면접대상자 제한조건은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비교적 짧고, 기후에 따른 착의량의 차이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출신국가가 아열대, 온대, 한대 지역으로 나누어져야 하고, 자녀가 있어야 하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선정이 매우 까다로웠다.

연구에 참여한 11명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은 25세에서 39세까지, 거주기간은 4년에서 10년, 자녀수는 1~2명, 거주 지역은 수도권이었다. 면접 대상 시기는 2010년 5월 25일에서 7월 20일까지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A씨는 몽골 출신으로 27세에 한국 거주기간은 4년이며, 4살 된 아들이 있다. 시골에서 자랐으며, 어린 시절 말을 타고 학교를 다니고, 전통복식을 입고 생활하는 등 전통적인 몽골 생활양식을 하였다. 의복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많은 편이고, 경제권도 가지고 있어 자유롭게 의복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였다.

B씨도 몽골출신으로 39세에 울란바트로의 대도시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러시아에서 의상을 전공했으며, 한국인 남편은 독일에서 만나 결혼했고, 남편은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성격은 조용한 편이고, 결혼 한지는 9년,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6년으로, 여동생도 몽골에서 패션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 의상과는 관련이 많았다.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에도 몽골의 식구들과 교류가 잦은 편이다.

Table 1. Subject description

Case	Country	Age	Years of Korea residence	Years of marriage	Number of children	Residence in Korea
A	Mongolia	27	4	4	a son (4yrs)	Kimpo
B	Mongolia	39	6	9	a son (5yrs), a daughter (3yrs)	Bupyeong
C	Mongolia	35	5	5	a son (6yrs), a daughter (4yrs)	Sungnam
D	China	32	9	5	a son (4yrs)	Sungnam
E	China	34	7	5	two sons (5yrs, 3yrs)	Seoul
F	China	37	4	9	a son (4yrs)	Yangjoo
G	Japan	34	10	6	two sons (6yrs, 4 months)	Uijeongbu
H	Japan	39	9	9	two sons (9yrs), a daughter (6yrs)	Sungnam
I	Vietnam	25	4	4	a son (4yrs)	Sungnam
J	Vietnam	38	10	10	two sons (11yrs, 9yrs)	Hanam
K	Malaysia	37	4	5	a son (3yrs), a daughter (5yrs)	Bupyeong

C씨는 울란바트로 근처의 시골출신으로 국제 결혼소개소를 통해서 남편을 만나 한국에서 결혼 하였으며, 35세이며, 한국에 거주한지 5년이 되었다. 몽골에서는 컴퓨터관련 회사와 여행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 한 적이 있다. 남편은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1남 1녀의 자녀와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다. 생활비는 필요할 때마다 남편한테 받아서 쓰는데, 월평균 80만 원 정도 쓰고 있다고 하였다.

D씨는 중국 조선족이며, 32세로 연변 출신이다. 한국 거주기간은 9년이며, 결혼한 지 5년 되었다. 남편은 회사원이며, 수입이 안정되고, 경제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서 의류 등 소비생활에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다. 현재의 결혼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4세 된 남아와 남편 세 식구가 주택에서 살고 있다.

E씨는 중국 한족으로 34세이고, 한국 거주 기간은 7년, 결혼기간은 5년 되었다. 5살과 3살의 남아 2명, 남편과 네 식구가 살고 있다. 성격은 적극적인 편이었고, 친정아버지께서 교사여서 비

교직 엄격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호기심도 많은 편으로 현재에도 1주일에 2~3번 정도 본국과의 연락을 취하고 있다.

F씨는 중국 조선족으로 37세이고, 결혼 한 지 9년이 되었으며, 한국에서 거주한 지는 4년째이며, 한국에 오기 전에 식구들과 일본에서도 거주 하였다. 현재 남편은 LED관련 해외 영업을 하며, 4세된 아들과 함께 세 식구가 생활하고 있다.

G씨는 일본 후쿠오카출신으로 34세이다.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은 10년이며, 결혼한지는 6년 되었고, 남아 2명(6세, 4개월)과 남편과 함께 네 식구가 살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일러강사를 하고 있고, 본국과의 연락도 긴밀하며, 비교적 즐거운 한국에서의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H씨는 39세로 일본 가나가와현 출신이다. 남편과 시어머니, 9세 된 남아, 6세의 여아 5식구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한국 거주기간은 9년째이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으나, 수입이 많은 편은 아니어서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다.

I씨는 베트남 출신으로 25세이고, 남편과 4세 남아와 함께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다. 국제결혼

알선업체에 의해 결혼을 했으며, 한국에서 생활한지는 4년이 되었다. 남편의 직업은 간호사이고, 본인도 성남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베트남인들을 위한 번역을 하고 있다. 일정한 수입이 있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J씨도 베트남 출신으로 38세이다. 한국 거주기간이 10년이며,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본인의 성장배경은 5남 2녀의 여섯째로 베트남의 시골 마을에서 생활하였으며,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어서 매우 엄격하게 자랐다고 한다. 현재도 본국과는 1달에 1번씩 연락을 하고 지낸다고 한다.

K씨는 말레이시아출신으로 37세이다. 한국 거주기간은 4년이며, 5살된 딸과 3살된 아들이 있다. 결혼 한 지는 5년이 되며, 말레이시아에서도 화교출신이다. 남편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K씨는 매우 성실하며,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몽골인 3명, 중국인 3명, 일본인 2명, 베트남인 2명, 말레이시아인 1명으로 한대지역, 온대지역, 아열대지역으로 골고루 분포되게 하였으며, 기후와 문화의 차이에 따라 적응하는 방식을 알아보려고 선정되었다.

III. 결과 및 고찰

1. 환경기온의 차이에 따른 냉난방 현황

세계의 기후는 아열대, 온대, 한대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기후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간은 주택을 짓고 냉난방을 하며 의복을 착용하는 등 문화적 환경 적응 수단을 개발하여 생활하고 있다(정영옥 1991). 우리나라는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사계절이 있는 냉, 온대기후에 속한다. 또한 대륙의 영향을 받아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고,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부는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한랭 건조하고, 여름에는 북태평양에서 부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기후의 특징을 띠고 있다. 따라서 다른 기후 지역에서 살았던 다문화가정여성들은 우리나라의 기후와 냉난방환경에서 적응하는데 있어서 자국의 생활습관과 그에

적용된 인체의 생리반응에 따라 적응상황이 다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몽골은 사막이 넓고,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한국과는 기후가 다르지만, 사계절이 있어요. 몽골의 봄과 가을은 바람이 많이 불어 춥고, 비가 오지 않아 먼지바람이 자주 일어나요. 여름은 7, 8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한국보다는 건조하고 대낮의 온도는 28~30℃로 덥고, 밤에는 시원해요. 특히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의 여름이 온도도 높고, 습기가 많아 견디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한국에서는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는데, 몽골에서는 에어컨을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하니 시원했어요. 한편 몽골의 겨울은 거의 6개월 정도 되는데, 온도가 영하 20~30℃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한국에서 겨울은 저에게는 춥지 않아, 겨울에도 난방을 잘 하지 않아요.(참여자 A씨 : 몽골)

몽골의 여름은 한국과 비슷하나, 겨울은 한국보다 훨씬 더 추워요. 봄과 가을은 바람이 많은데, 봄은 한국보다 춥고, 가을은 한국하고 비슷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과 같은 냉방 기구는 이용하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더우면 외출 후 귀가했을 때에만 에어컨을 틀어서 더위를 식히고 하루 종일 틀지는 않아요. 몽골에서의 난방시설은 한국과 달리 벽에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고, 전통 난방기구가 마루에 있어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겨울을 보냈어요. 한국에서는 몽골만큼 춥지 않아서 난방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남편이 추위를 타서 난방을 많이 해요. 한국의 난방시설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저는 바닥이 뜨거워, 잠을 자기 힘들어요. 겨울이 되면 남편과 온도차가 나서 가끔 다투기도 해요.(참여자 C씨:몽골)

제가 살고 있는 연변은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여름은 평균 27℃정도로 한국과 비교

하면 조금 더 시원한 편이에요. 가을은 짧고, 겨울은 11월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 평균 영하 20℃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여름에 더울 때 선풍기를 사용하였고, 한국에서도 더우면 선풍기를 사용해요. 겨울이 되면 중국은 중앙난방식으로 정부에서 일정기간동안 일률적으로 난방을 해 주는데, 정부에서 난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온풍기나 전기담요를 사용하면서 추위를 지내요. 한국에 와서는 더운 여름이 더 힘들며, 추위는 별로 타지 않는 것 같아요. **(참여자 D씨: 중국)**

제가 지내던 후꾸오카의 겨울은 영상 2~3℃로 부산과 비슷하고, 여름은 서울과 비슷해서, 온도 때문에 한국에서 적응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아요. 다만 겨울이 되면 한국이 일본보다 건조해서 아이가 감기가 자주 걸리는 것 같아요. 겨울이 되어 난방을 할 때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고타쯔(こたつ)를 한국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참여자 G: 일본)**

한국에 오기 전까지 호치민에서 살았어요. 우기(4월~7, 8월)와 건기로 나누어지고, 우기는 평균 37~38℃인데, 최근에는 41℃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건기 때는 평균 16℃정도가 되고, 냉방시설은 큰 건물에서만 에어컨을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겨울에는 춥지 않기 때문에 물론 난방시설은 없어요. 저에게 한국의 여름 날씨의 습기가 많아서 따갑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아서인지, 한국에서는 에어컨을 틀면 피곤하고, 적응이 안 되어 집에서 잘 틀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에어컨을 틀어야하기 때문에 서로 잘 맞지 않아요. 반면에 저는 겨울이 너무 추워서, 난방의 온도를 50℃까지 올려 놓고 지내요. 남편은 더워서 잠을 자다가 밖에 나갔다 오기도 하고, 여름과 겨울이 되면서 온도차가 많이 나서 다투곤 해요. **(참여자 I: 베트남)**

11명의 연구 참여자 중 우리나라와 기후를 비교했을 때 몽골출신의 3인과 중국인 2인은 더 추운 곳에서 살았고, 중국인 1인, 일본인 2인은 우리와 비슷한 기후에서, 베트남 2인과 말레이시아 1인은 더 더운 기후에서 살았다. 이들의 환경기온 적응에 대한 반응은 한대지역과, 아열대지역에 따라 느끼는 한서감각과 냉난방의 사용정도에서 확인한 차이를 보였다. 몽골출신과 추운 지역의 중국 출신 1명은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후에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으며, 반면 베트남 출신 2명과 말레이시아출신은 겨울철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한대지역여성들은 한국의 겨울철에 난방도 잘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아열대지방에서 온 여성들은 겨울 난방 온도도 높고, 난방시간이 길었다.

이러한 생활습관이 생기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쿤(Coon 1968)의 연구에 따르면 에스키모인, 유럽인, 아프리카인의 지방 축적패턴의 상이함을 통해 각 지역사람들의 기후 적응력을 설명하였고, 어빙(Irving 1966)은 각 기후대에 따라 사람과 동물의 순환체계는 다름을 밝혔다. 또한 '환경으로부터 복사에너지 흡수를 통해 얻어지는 열량도 기후대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Clark & Edholm 1985), 환경에 따라 인간이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인체내부에서 이미 서로 다른 적응 반응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가 다문화가정 여성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2. 기후별 사계절 착의량에 따른 결과 고찰

사람들은 계절변동에 따라서 실내 온열환경을 조절함과 동시에 착의량을 조절하여 적응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착의 습관은 기후별로 다를 것이며, 자신의 국가에서 형성된 착의 습관이 한국의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기후 적응에 대한 의복의 생리적 기능을 규명하고 착용자의 내한 내열성을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또한 연구대상자 자녀의 착의상태는 어머니의 한서감각의 영향이 크다는 보고가 있으므로(김순자 1981; 박순자 등 1985),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착의량과 착의습관

은 어떻게 키워지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 기후별로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한대기후지역 사람들의 착의량 결과

한대기후 지역에서 살았던 몽골인 여성 3명과 중국인 여성 1명의 착의량 결과는 몽골여성 1명이 체질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겨울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입고 있는 옷의 착의갯수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내복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봄, 여름, 가을의 착의량과 착의습관은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봄과 가을에는 내의에 긴팔의 티셔츠와 긴바지를 입고, 다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은 점퍼의 두께가 한국 사람들보다 조금 얇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에는 혹 감기에 걸릴까봐 내복을 입히게 되요. 한국에서의 여름은 더워서 한국 사람들처럼 내의도 입지 않고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햇볕이 뜨거워서 캡모자를 쓰고 다녀요. 하지만 아이에게는 어린이집에서 많이 뛰어다녀 옷이 금방 젖으니깐, 내의를 입히고, 반팔에 반바지를 입혀요.

저에게 한국의 겨울은 견디기 쉬워 집에 있을 때에 반팔을 입고 있을 때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내복을 입지 않고, 외출 시에는 민소매 내의에 긴팔소매의 옷과 긴 바지에 겨울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가끔씩 하지만 장갑은 잘 착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는 저와 다를 것 같아서 어린이집에 갈 때는 내복도 입히고, 긴팔소매의 상의에 긴 바지, 코트에, 목도리와 장갑, 털모자를 모두 입혀서 어린이 집에 보내요.(참여자 A)

저는 추위를 많이 타요. 몽골에 있을 때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생활습관 때문에 겨울에 난방을 하지는 않지만 옷은 많이 입는 편이에요. 봄과 가을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한 겹의 옷을 더 입어요. 특히 봄에는 황사 때문에 안경과 마스크, 모자를 꼭 쓰게 되고,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마스크와 모자를 꼭 착용시켜요. 저는 여름에도 덥지만 내의는 꼭 입고, 반바지, 반팔의 상의를 입어요.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선글라스와 모자를 반드시 착용해요. 아이도 저와 같이 속옷을 꼭 입히고, 반바지 반팔의 상의를 입혀요. 겨울이 되면 몽골에서 살 때도 그랬지만 내의에 내복을 2개씩 입고, 티셔츠, 조끼, 긴바지를 입고, 점퍼를 입었어요, 양말은 2, 3개씩 착용했으며, 털옷을 많이 입었어요. 이러한 착의습관이 한국에서도 남아있어 여전히 옷을 여러 겹 입게 되요. 아이도 감기에 걸리까봐 겨울이 되면 항상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옷을 입히게 되는데, 제가 항상 춥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항상 많이 입히게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B)

저의 옷 입는 습관은 한국 사람들과 비슷하나, 겨울철에 좀 다른 것 같아요. 몽골에서 입는 습관에 따라, 실내외의 온도차를 생각해 내의류는 적게 입고, 겹옷을 여러 벌 입어 추위를 견디는 편이에요. 즉 외출 시에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쓰며, 머플러는 잘 하지 않지만, 장갑을 끼고 다녀요. 아이들도 내의와 내복에 겹옷을 입히고, 그 위에 두꺼운 점퍼를 입혀요. 신발은 부츠를 신고, 모자, 장갑, 목도리 등을 많이 해서 외출 시 추위를 견디게 해요.(참여자 C)

봄에는 내의에 반팔 상의와 7부바지, 카디건을 입어요. 남편이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서 우리 아이도 남편처럼 봄까지도 내복을 입고 긴팔 상의에 긴바지를 입고, 점퍼를 더 입어요. 아이는 저보다는 남편과 옷 입는 방식이 비슷해서, 남편과 같이 11월부터 내복을 입어요. 하지만 겨울이 되어도 저는 내복을 입지 않아요. 긴 바지와 긴팔티를 입고, 겨울코트를 입으며 외출 시에는 머플러를 하고 손이 추위에 민감하여서 장갑은 반드시 착용해야 해요. 아이는 겨울이 되면

봄, 가을과는 다른 더 두꺼운 보온메리를 입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보온메리를 입어요. 저는 아이에게 긴팔 셔츠, 긴 바지, 스웨터를 입고, 겨울코트에 모자, 장갑, 머플러에 마스크까지 몸 전체를 다 감싸게 입혀요. 우리 집에서는 남편과 아이의 착용량과 저의 착용량이 매우 달라요.(참여자 D)

몽골인 여성 3인과 추운지방에 사는 중국인 여성 1인의 계절별 착용습관을 살펴보면 겨울철의 착용량이 우리나라사람들과 차이를 보였다. 우선 난방도 잘 하지 않았으며, 참여자 A, C, D씨는 적은 착용량으로 겨울을 지내고 있었다. 반면 참여자 B씨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서 다른 몽골출신 다문화가정 여성들에 비해 옷을 많이 입었으나 이러한 착용습관은 몽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고, 한국에서도 겨울에 같은 착용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 A, B, C씨의 경우 엄마의 착용습관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참여자 B씨의 경우는 자신이 옷을 많이 입는 관계로 아이의 착용량도 많은 편이고, 참여자 A씨와 C씨는 적게 입는 습관으로 인해 자녀들도 착용량이 적어 한국 아이들보다는 추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더 키워지고 있다. 이러한 착용습관은 아동의 환경온적응능력범위를 넓히게 되고, 방위체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荒木勉·최정화 1982). 한편 참여자 A씨의 경우 외출 시 자녀에게 자신보다 조금 더 옷을 입히는데, 박순자 등(198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어머니보다는 어린이의 착용량이 많은 것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참여자 D씨는 아빠와의 착용량과 같아 겨울에 옷을 입는 양이 오히려 한국아이들보다도 많은 편인데, 이러한 현상은 체질적인 문제인 것으로 사료되는데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 본다.

한편 여름에 내의를 입는 엄마의 착용습관에 따라 아동들도 여름에 내의를 착용하고 있는데, 내의의 착용은 여름의 땀 흡수에 도움이 되어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여 건강에 도움이 됨으로 바람직한 의생활습관이라 사료된다. 특히 요즘처럼 냉방 기구를 많이 사용하여 실내외의 온도차

가 심할 경우에는 내의의 기본 기능인 보온 기능도 있으므로, 아동들의 내의 착용 습관은 필요하리라 본다(이운정 2010).

2) 온대 기후지역 사람들의 착용량 결과

온대기후 지역에서의 일본인 여성 2명과 중국인 여성 2명의 착용량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들과 비슷하였으며, 문화적인 차이에 따른 차별성이 있었다.

한국에서 산지 9년이 되다보니 점점 한국 사람처럼 옷을 입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옷을 입을 때나 아이에게 옷을 입힐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디자인보다는 기능을 먼저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감기도 자주 걸리고 아토피가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내의는 꼭 면으로 된 것을 입혀요. 저는 아이들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어서, 봄에는 황사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아이는 모자까지 꼭 씌우고 있어요. 모자를 쓰는 또 다른 목적은 아이의 피부가 약해 얼굴이 쉽게 타기도 하고, 피부에 염증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머플러로 머리를 감싸 직사광선을 피했는데, 한국에서도 똑같이 머플러로 머리를 감싸는 것은 한국 사람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 저와 아이 모두 내의를 입고, 반팔 상의에 반바지 혹은 7부 바지를 입어요. 겨울에는 꼭 내복을 입고, 모자가 달린 점퍼와, 바지는 솜바지를 입혀요. 중국에서는 겨울에 아이들에게 추위를 견디기 위해 솜바지를 입히는데, 저도 한국에서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요. 스웨터는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고, 또 정전기가 발생하여 피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에게 입히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아이가 피부가 민감하여 속옷과 겉옷 등에 모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참여자 E)

제가 옷을 입는 습관은 한국사람들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특징적인 것은 겨울이

되면 속바지를 입어요. 치마를 입을 때도 속바지를 2겹으로 입는데, 중국 사람들은 다리가 따뜻해야 몸이 따뜻하다고 생각을 해서 겨울에는 속바지를 꼭 입는데, 이러한 습관이 계속 지켜지는 것 같아요. 또한 아이에게도 겨울이 되면 하의를 많이 입히는데, 중국에는 ‘게시바지’라고 하여 바짓가랑이부분이 터져있어 지저귀를 갈기가 편한 옷이 있는데, 겨울에 게시바지와 속바지를 안에 입히고 겉에 바지를 아이에게 입히고 있어요. **(참여자 F)**

참여자 E씨와 F씨는 중국출신으로 사계절 중 겨울철에 입는 착의량에서 한국사람들과 차이를 보였다. 두 참여자 모두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추운 지역에서 살았는데, 겨울에 입었던 속바지와 다리를 따뜻하게 해야 건강하다는 생활습관을 한국에서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습관은 자녀들의 옷차림에도 영향을 끼쳤다. 박우미(1982)와 심부자(1983)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울철 적응을 위해서는 내의나 하의보다 외의나 상의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의 착의습관은 내의와 하의의 착의량 증가를 통한 보온의 경향은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 사료된다.

제가 살았던 후쿠오카는 한국의 부산과 기후가 비슷해서 봄, 여름, 가을의 착의량은 비슷한데, 겨울은 의정부에서 살고 있어서 인지, 좀 더 두껍게 입는 것 같아요. 저는 일터강사인데 직업 때문에 상의는 블라우스 종류, 하의는 치마를 자주 입고 원피스를 입는 등 클래식한 스타일의 옷을 계절에 맞추어 입고 있어요. 겨울에는 내복을 반드시 입고, 오리털과카를 입어 추위를 대비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이며, 제가 입는 것과 비슷한 양의 옷을 입히며, 여자아이에게는 치마나 원피스를 입히게 되는데,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치마 밑에 레깅스를 신기고, 보온용으로 오리털과카를 입혀요. **(참여자 G)**

제 생각에 저의 착의량과 착의습관은 한국분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봄과 가을에는 내의를 입고 반팔상의와 긴바지에 가디건을 입고 외출해요. 여름에는 아주 짧은 반팔소매의 옷과 7부 바지와 스커트를 입는데, 스커트가 더 시원하기 때문에 스커트를 자주 입어요. 내의는 덥지만 한국 옷들이 얇고 비치는 것이 많아서 꼭 입게 되요. 아이는 지금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내의를 입고 다녔는데, 학교에 다니고 나서부터는 내의를 입지 않아요. 아마 친구가 입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봄과 가을에도 내의를 입지 않고 긴팔티와 청바지 또는 면바지를 입고 점퍼를 입는데, 조금 더 추울 때는 내의를 입지 않고 조끼를 안에 입고 다녀요. 여름에도 아이들은 내의를 안 입고, 반팔티에 반바지 그리고 샌들을 신는데, 저는 민소매 옷들은 아이들 팔에 상처가 날까봐 절대 안 입혀요. 딸은 예쁜 옷을 사 주면 하루종일 기분 좋게 지내는데, 여자애는 편한 옷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 저는 집에서는 내의를 입고, 외출할 때만 내복을 입어요. 그 위에 긴팔 상의와 긴 바지를 입고, 스웨터에 점퍼 등 좀 두껍게 입어요. 아이들도 같은 형식으로 입고 겉옷으로는 오리털점퍼를 입혀요. **(참여자 H)**

두 명의 일본인 연구 참여자들은 우리나라와 기후차이도 적고, 또 거주기간도 다른 국가의 연구 참여자들보다 길어서인지 우리나라 사람들과 착의량과 착의습관은 유사하였다. 다만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의생활양식의 차이를 보이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친구들과의 의복 동조성을 보이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3) 아열대기후지역 사람들의 착의량 결과

아열대기후 지역에서의 베트남 여성 3명과 말레이시아 여성 1명의 착의량 결과는 여름에는 자신의 나라의 옷을 이용하고, 겨울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은 착의량을 지녔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봄과 가을, 겨울은 너무 추워서 힘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의를 입고, 양말을 신는 습관이 없어서, 저도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내복을 입는 것이 불편해서 잘 입지 않아요. 저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내복을 입기보다는 겁옷을 한 벌 정도 더 입고, 귀마개나 장갑, 머플러 등을 해서 보온을 하고 있어요. 저는 봄과 가을에도 귀마개를 하고 다녔어요. 남편이 창피하다고 하여, 지금은 조금 덜 하는 편이지만 제 나름의 추위를 견디기 위한 방법이예요. 아이에게도 제가 내의를 안 입기 때문에 내의를 잘 안 입히는 편이고, 봄에는 날씨가 쌀쌀해도 내의보다는 장갑과 모자 등을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까지 착용시키고 있어요. 겨울에도 내복을 입히지 않고 코트와 같은 겁옷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입히는 경향이 있어요.(참여자 I)

저는 봄, 여름, 가을에는 한국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옷을 입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내의를 잘 안 입어서인지 한국에서 내의를 잘 입지 않아요, 아이에게도 내의는 잘 안 입혀요. 하지만 한국의 겨울은 추워서 내복을 입고, 그 위해 3~4겹 정도 겹쳐 입고, 아이도 어린이집에 갈 때는 내복에 옷을 여러 벌 입혀 보내고 있어요.(참여자 J)

한국에서의 첫 번째 겨울은 아무리 옷을 많이 입어도 추워서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 온지 4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겨울은 너무 추워요. 겨울이 되면 집에서 아이에게 내복과 스웨터, 조끼를 입히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아이의 목에 수건을 두르면 감기도 예방하고 따뜻하다고 가르쳐 주셔서 겨울이면 늘 아이의 목에 수건을 감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갈 때는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제가 옷을 너무 많이 입히나 봐요. 내복, 조끼에 티셔츠 등 선생님

께서 어린이집에 옷을 너무 많이 입혀서 보내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지만, 제가 한국이 추워서 인지 계속 많이 입히게 되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 보면 거의 내복차림으로 있는 것 같아요. 반면 저는 한국의 여름철에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져온 옷들을 입고 지내요. 말레이시아의 더운 날씨 때문에 여름옷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입고 지내기가 좋아요. 다만 스타일이 조금 유행을 지난 것이고, 한국과는 좀 맞지 않기는 하지만 더위에는 시원한 옷이 좋기 때문에 그냥 입고 다녀요.(참여자 K)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와 같이 아열대 기후에서 살았던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겨울의 추위를 힘들어했다. 베트남여성들은 본국에서 속옷을 입는 습관이 없어서, 한국에서는 춤지만 속옷을 입지 않고 지내고, 대신 겁옷을 여러 벌 입어 추위에 적응하는 착의습관을 보여주었다. 엄마의 이러한 착의습관은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아이들도 속옷을 입지 않고 겁옷과 머플러, 장갑, 모자 등으로 체온을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참여자 K씨의 경우에는 반대 경향을 보였는데, 내복과 더불어 지나치게 아이를 감싸는 착의 방식으로 추위를 견디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착의별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다문화가정여성들은 자국의 기후에서 이미 형성된 내한성과 내열성 때문에 한국에서의 계절변화에 따라 다른 착의량을 보여주었다. 즉, 겨울에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은 덜 추운 곳에 사는 사람만큼 옷을 입고도 계절적응을 할 수 있고, 여름에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은 덜 더운 곳에 사는 사람만큼 옷을 입고도 적응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형성된 착의습관으로 인하여 내의를 입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어릴 때 형성된 착의습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총착의량이 적은 여름철보다는 총착의량이 많은 겨울철에 적응하기 위한 의복 착의량과

착의습관에서 지역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온대지역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 한대지역 사람들은 적은 착의량을, 아열대지역사람들은 더 많은 착의량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향은 총착의량이 많아지는 겨울 착의량의 개인차가 많아진다는 박우미(1982), 심부자(1983), 안필자(1991) 등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저온에서의 착의량의 차이는 큰 것을 알 수 있다.

3. 수면 시의 옷차림과 침구사용 현황비교

수면시간은 하루 중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수면부족은 피로를 축적시킴으로 쾌적한 수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면의 부족은 신체적,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생겨날 수 있으나, 실내외의 온습도, 침구와 잠옷과 같은 수면환경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최정화 등 2005). 특히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은 기후가 다르고, 냉난방습관 및 주거환경이 달라 수면환경에의 적응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을 사료되나 이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다문화가정의 일반적인 침상도구 및 수면 시 입는 옷차림에 실태를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이불과 요 모두 몽골에서 가져온 것을 사용해요. 몽골은 캐시미어가 특히 좋아서 모두 캐시미어류의 이불과 요를 사용하는데, 여름에는 얇은 것을 덮고 그 위에 캐시미어를 덮어 보온을 해 줘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반드시 배를 덮어 주어 배탈을 방지하려고 해요. 저의 식구들은 잠옷을 따로 입지 않고, 아이들의 경우는 조금 큰 사이즈의 옷을 밤에 잘 때 입히는데, 그러면 배 부분을 아래 위로 2번 감싸게 되어 배를 따뜻하게 해 줄 수 있어요. 어릴 때 엄마가 항상 배를 보온하라고 하여 저도 지금 애들을 키울 때 배를 잘 덮어주려고 해요.(참여자 B: 몽골)

어른들이 쓰는 이불과 요는 한국인들과 같은 한국제품을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아이의 이불은 중국에서 부모님이 만들어 주신

100%면으로 된 이불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의 잠옷 중에 수면조끼가 있는데, 수면조끼는 겨울과 봄에 배 부분을 가리기 위해 입혀요.(참여자 E: 중국)

처음 한국의 온돌에서 잘 때 바닥이 딱딱하여 등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꺼운 요를 깔고 자고, 이불은 여름에는 얇은 것, 겨울에는 숨이 들어간 두꺼운 것을 덮고 자요. 잠옷도 특별히 따로 구입하여 입지 않고 집에 있는 옷 중 편한 것으로 입고 자요, 아이는 주로 속옷 차림이나 겨울에는 내복 차림으로 지내요.(참여자 H: 일본)

여름에는 대나무 성분이 들어있는 요를 베트남에서 가져와서 사용하고, 여름용 잠옷은 원단이 베트남 것이 더 시원해서 베트남에서 사 온 것으로 입고 자요. 다른 계절은 한국 것을 사용하고, 잠옷은 디자인이 품이 넓은 것을 많이 착용하고 있어요.(참여자 J: 베트남)

연구 참여자들은 침상기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일반 옷처럼 자주 바꾸어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구입하면 오랫동안 사용함으로 올바른 선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잠옷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의나 내복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또한 침구는 1/3 정도는 본국에서 직접 가져 온 것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2/3은 한국에서 구입하여 우리나라 침상문화에 적응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기후에 관계없이 수면 시 다문화가정의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아이들의 배를 이불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경우 특별히 잠옷을 입지 않고 자는 경우가 많았는데, 잠옷은 인체와 침구 사이에 형성되는 온도와 습도에 대해 완충작용을 하고, 수면 도중 땀을 흡수하며, 또 수면 도중 이불이 벗겨졌을 때 찬 공기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 안정된 잠을 위해 매우 유익함으로, 수면 시 잠옷을 착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옷의 구매 실태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옷을 구입하는 장소, 구입 횟수, 구매 관련 정보를 얻는 곳, 옷을 살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 총 생활비 중 피복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의복 구입패턴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남편은 제가 옷을 사는 것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1달에 2번 정도 옷을 구입하는 것 같아요. 제 옷은 동대문평화시장에서, 아이 옷은 대형매장에서 사요. 옷에 대한 구매정보는 없어서 혼자 알아서 사요. 옷을 살 때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브랜드인데, 브랜드의 옷을 입어서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요. 또 유행하는 옷을 사 입는 것을 좋아해요. 지금은 몽골에서 가져온 옷은 전혀 입지 않고, 옷을 사는 것을 좋아해서, 피복비 지출은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A: 몽골)

저는 국내에서는 아울렛이나 마트에서 옷을 사요. 그러나 옷에 대한 구매 정보도 없고, 옷에 대해 관심이 적어서 옷을 구입하는 횟수는 3개월에 한 번 정도예요. 옷을 계획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면 사는 편이에요. 몽골에서 살고 있는 식구들이 옷을 많이 보내주어, 피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옷을 살 때 관리의 편의성에 가장 중점을 두는데, 제가 손빨래를 하기 때문에 세탁이 편리한 것에 관심이 많고, 유행을 따르지는 않는 편이에요. 아이들 옷도 놀이방 갔을 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편의성을 가장 많이 생각해요.(참여자 B: 몽골)

한국에 온 첫 해는 주로 친구가 주는 옷으로 지내다가, 1년 정도 후부터는 남대문 시장이나 구청의 벼룩시장을 이용해서 구입해요. 옷에 대한 정보는 같은 동네에 사는 주부들을 통해서 듣게 되거나 G-마켓과 같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구하는 편이에요. 구매 횟수는 1년에 1,2회 정도로 자주 사는 편은

아니예요. 옷을 살 때는 디자인을 가장 먼저 보고, 가격과 촉감, 편의성을 보기 때문에 제 옷에는 스판이 들어가서 신축성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한 번 살 때 옷을 많이 사는 편이지만 피복비 지출은 평균적으로 보면 생활비 중 5%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 옷을 살 때는 파랑이나 노랑색 옷을 사는데 그 이유는 눈에 쉽게 띄어 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신발도 소리 나는 신발을 신겨 아이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아이가 캐릭터상품을 좋아해서 캐릭터가 있는 옷을 사게 되요.(참여자 E: 중국)

저는 옷을 이마트나 동대문시장에서 주로 사요. 아기의 유아용품은 유아전문매장에서 구입하고, 구매정보는 따로 얻을 곳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이의 지저귀나 물티슈같은 의류관련제품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사요. 옷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고, 세일을 할 때 구매를 해요. 세일 정보는 휴대폰으로 문자가 들어오면 알게 되요. 피복비의 지출은 10%정도 되며, 의복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관리의 편의성이고, 아이의 피부를 생각해서 품질을 중요시하고 내구성이 있는 옷을 골라요. 또한 어린이집에 보낼 때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어 1~2벌 정도는 비싼 것으로 구입하여 입고 있어요.(참여자 F: 중국)

옷은 주로 대형마트에서 사고 있고, 애기 옷은 얻어 입는 편이에요. 가끔씩 인터넷을 통해 의복을 구입하기도 해요. 인터넷으로 옷을 사면 가격이 많이 싼 것 같아요. 옷에 대한 정보는 동네에 사는 엄마들에게 듣고 있고, 옷은 계절이 바뀔 때 주로 옷을 구입하고, 세일을 할 때도 사요. 일본에서는 옷을 돌려 입는 것은 가족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데 한국에서는 이웃끼리 돌려 입는 것을 보고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옷을 살 때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소재인 것 같고, 그 다음은 색상, 마지막이 디자인이에

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옷을 살 때는 면과 같이 소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참여자 G: 일본)

저는 옷을 일본에서 가져 와서 입고 있고, 한국에서는 집 주변에 있는 대형할인 마트나 아울렛에서 구입하고 있어요, 피복비로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를 쓴다고 볼 수 있으며, 옷은 계절이 바뀔 때나 아이의 옷이 작아졌을 때 구입하고 있어요. 아직 옷을 마음대로 사 입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엄마의 입장에서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아이 옷을 골라요.(참여자 H: 일본)

처음 1년 동안은 베트남에서 가져온 옷을 입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산 옷만 입어요. 옷은 주로 시장이나 지하상가에서 세일할 때 많이 사 입을 편인데, 유명브랜드 아울렛에 가서 이월상품을 구입하면 매우 경제적이고, 유명브랜드를 입을 수 있어서 좋아요. 옷에 대한 정보는 한국친구들에게 듣거나 신문광고지를 통해 알게 되고, 집에서 가끔 홈쇼핑을 통해서도 구입할 때도 있어요. 옷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나 계절이 바뀔 때 사게 돼요. 피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10%정도 되는 것 같고, “아름다운 가게”에 가서 주변사람들과 옷을 돌려 입기도 해요. 의복구입 시 저는 남편은 브랜드 있는 옷을 중심으로, 나는 옷은 입기 편한 것으로 사고, 애들 옷은 친구들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가격은 중간정도가 되거나, 애들과 같이 가서 애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사주기도 해요. 큰 애는 브랜드 있는 것을 원하는데, 저는 애들 옷은 공부에 지장이 없는 편한 옷이 제일 좋을 것 같고, 눈에 띄지 않는 옷이 좋으며, 다른 아이들과 비슷하게 입어 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해요.(참여자 J: 베트남)

다문화가정여성들의 의복구매 장소는 대형마트가 가장 많고, 지하상가나 남대문 동대문과 같은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 명의

여성들이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해서 의복을 구입하기도 하였고, 가격의 저렴함을 그 이유로 꼽았다. 구청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이나 아름다운가게에서 옷을 싸게 구입하거나 옷을 돌려 입기도 하였다. 옷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여성이 50%정도 되며, 인터넷이나 신문광고 또는 휴대폰 문자를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하며, 동네사람과 같은 인적 자원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사람도 3명 있었다.

구매 횟수는 다문화가정여성들의 상황에 따라 달랐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세일할 때나 계절이 바뀔 때, 특히 어린 아이들은 빨리 자라므로 옷이 작을 때 옷을 구입하였다. 한편 본국에서 옷을 가져와서 입을 경우도 2명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피복비 지출이 낮았다. 피복비 비율은 평균 10%정도이며, 연구 참여자 중 2명은 피복비지출이 30~50%정도로 생활비 중 피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우리나라 가게의 피복비 비율이 1990년에 8%대에서 2008년은 5%정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경향은 중저가브랜드의 활성화와 통신비와 같은 새로운 소비비율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하였다(이미영 2009). 물론 다문화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100만원~200만원정도로 우리나라 가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 의류제품의 우수성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이며, 국내 정착 후 1~2년이 지나면 한국의류제품들을 모두 구입하여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소비자층을 위한 새로운 시장형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여성과 자녀들의 계절별 착의량 및 착의습관과 옷의 구매실태를 파악하여, 한국에서의 의생활 문화 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가 다르고,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여성 11명과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로 범주화 분석과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나

은 주제는 ‘환경기온의 차이에 따른 냉난방 현황’, ‘기후별 사계절 착의량의 차이’, ‘수면시의 옷차림과 침구 현황’, ‘옷의 구매실태’의 4개 주제로 나누어졌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환경기온의 차이에 따른 냉난방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느끼는 한서감각과 냉난방의 사용정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한대지역여성들은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후에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으며, 아열대지역의 출신들은 겨울철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한대지역여성들은 난방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열대지역여성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겨울 난방 온도를 높이고 난방시간이 길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냉난방기구의 사용 양식의 차이 때문에 초기에는 남편과의 갈등요인이 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적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후별 사계절 착의량에 따른 차이를 고찰해보면, 자신의 국가에서 형성된 착의 습관이 한국에서도 적용되며, 또한 이미 형성된 착의 습관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착의량에도 기후별로 차이가 보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착의량과 한서감각이 자녀의 착의량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대기후지역 여성들은 겨울에 적은 착의량으로 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적게 입는 착의습관은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방위체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됨으로 아동의 환경은 적응력에 도움이 된다. 온대 기후지역 사람들의 착의량은 기후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과의 착의량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문화적인 관습에 의한 의생활양식의 차이에 의해 착의량이 달랐는데, 중국의 경우 하의에 내복을 많이 입는 것이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었다. 아열대기후지역 사람들의 착의량은 겨울철에 더 많은 착의량을 나타냈지만 속옷을 입지 않고 자란 습관 때문에 내의에 의한 보온보다는 외의의 착의별수의 증가로 보온하는 것이 특이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다문화가정여성들은 자국의 기후에서 이미 형성된 내한성과 내열성

때문에 한국에서의 착의량에서 차이를 보여주었다. 겨울에 한대지방 사람은 적은 착의량으로도 한국의 계절에 적응을 할 수 있었고, 아열대지방 사람은 더 많은 착의량으로 한국의 겨울에 적응하였다. 또한 어릴 때부터 형성된 착의습관으로 인하여 아무리 추워도 내의를 입지 않는것으로 보아, 어릴 때 올바른 착의습관의 형성을 위해 의생활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수면 시의 옷차림과 침구 상태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일반 옷보다 관심이 적었다. 잠옷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의나 내복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침구는 30% 정도는 자신의 국가에서 가져온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70%는 한국에서 구입하여 우리나라 침상문화에 적응하고 있는 상태였다. 모든 다문화가정의 엄마들은 수면 시 아이들의 배를 따뜻하게 해 주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다문화가정의 경우 잠옷을 입지 않고 지는 가정이 많았는데, 잠옷은 쾌적한 수면을 위해 필요한 옷이므로 잠옷의 사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복의 구매 실태를 보면 다문화가정여성들의 의복구매 장소는 대형마트가 가장 많고, 지하상가나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 명의 여성들이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해서 의복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옷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여성이 50%정도이며, 인터넷이나 신문광고 또는 휴대폰 문자를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하며, 동네사람과 같은 인적 정보를 얻는 사람도 있었다.

구매 횟수는 다문화가정여성들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세일할 때나 계절이 바뀔 때, 특히 어린 아이들은 빨리 자라므로 옷이 작을 때 옷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왔다. 한편 본국에서 옷을 가져와서 입는 경우도 있으며, 피복비 비율은 평균 10%정도 였다. 우리나라 가계의 피복비의 비율은 2008년은 5%정도인데 다문화가정의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의류제품에 대해 매우 우수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정 소비자층을 위한 새로운 시장형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착의량

과 착의습관, 의복구매실태에 대한 자료로 보아 이들의 착의량과 착의습관은 우리와 다르고, 의복 구매를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도 적으므로, 다문화가정여성들이 우리나라기후에 맞게 의복을 입고, 우리나라 의생활문화에 동조되어 보다 쉽게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 정보의 보급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의생활과 관련된 경험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다만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넓고 깊이 있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연구대상자들의 비언어적인 메시지인 착의상태를 면접도중과 도출된 결과에 대한 논의 시 사진 촬영하여 이를 분석하였고, 소지하고 있는 자녀들의 사진에서 착의습관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기후적응은 장기적인 신체의 변화에서도 출되는 것이고, 자국에서 길러진 착의습관이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게 될수록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는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자의 한국거주기간이 4년에서 10년으로 그 범위가 넓어서 4,5년 거주한 연구대상자와 9,10년 정도 한국에서 거주한 연구대상자들간에 한국에서의 적응력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그들의 장, 단기적인 의생활 적응 과정에 대한 연차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적인 연구에서는 적응 또한 의복의 심리적인 요소도 매우 중요하므로, 다문화가정 여성과 자녀들의 의생활습관에 따른 심리적 적응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순자 (1981) 학령기 어린이와 어머니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착의량에 관한 위생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미 · 이난희(2009) 대구지역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식생활 실태 분석.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15(4), 405-418.
 박경자 · 김송이(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아동학회지 28(5), 91-108.
 박순자 · 최정화 · 이양후 · 荒木 勉(1985) 초등학교

교 아동의 착의량에 관한 위생학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4), 19-31.
 박우미(1982) 온열환경 변화에 따른 착의실태의 위생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심부자(1983) 환경온도 조건하의 착의 표준 설정에 관한 조사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21(2), 7-17.
 안필자(1991) 온열환경, 건강상태 및 운동습관이 착의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안필자 · 최정화(1992) 기후적응과 착의량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6(4), 417-430.
 양철호 · 김영자 · 손승용 · 양선화 · 신봉관 · 조지현(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6, 127-149.
 이금연(2003)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 - 실태와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이미영(2009) 90년대 이후 피복비 지출 감소 추세와 영향 요인 분석. 한국의류학회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
 이영주(2007)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2(2), 83-105.
 이윤정(2010) 녹색 의생활양식과 실과교육의 가치 - 에너지절약과 아동의 건강을 중심으로 -. 2010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원자 · 심의남 · 김진선 · 박승순(2000) 생활환경 온도와 착의량이 기조대사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8(3), 374~386.
 이정은(2007) 면접법을 통한 재외동포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조사. 2007년도 한국사회언어학회, 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45-57.
 주소희 · 이경은 · 권지성(2009) 조손가정아동의 생활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0, 97-131.
 정영옥(1991) 착의량을 중심으로 본 농촌지역주민의 계절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4), 417-430.
 최은화 · 이윤화(2010) 이혼 후 여성의 자기 인식 변화 과정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8, 119-149.
 최정화 · 김재영 · 김도희(2005) 한국인의 수면환경 실태 -침구와 잠옷을 중심으로-.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2(1), 48-55.
 한명숙 · 이인경(1992) 어머니의 의복행동이 자녀의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내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6(1), 23-31.
 황수경 · 최정화 · 성화경(1999) 계절별 착의량이 안정시 에너지 대사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3(3), 483-494.

- 荒木 勉·최정화(1982) 일본 어린이의 운동 생활 습관에 미치는 옷을 얇게 입는 생활의 영향과 그 밖의 환경요인에 의한 영향과의 비교. 서울대학교농학연구 7(1), 273-288.
- Bogdan RC, Biklen SK(1998)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MA: Allyn and Bacon.
- Clark R, Edholm O(1985) Man and his thermal

- environment. London: Edward Arnold.
- Coon C(1968) The living races of man. New York: Alfred A. Knopf.
- Kvale S(1996) InterView -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London: Sage.
- Marshall C, Rossman G(1995)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2nd ed.). Thousand Oaks, CA: Sage.